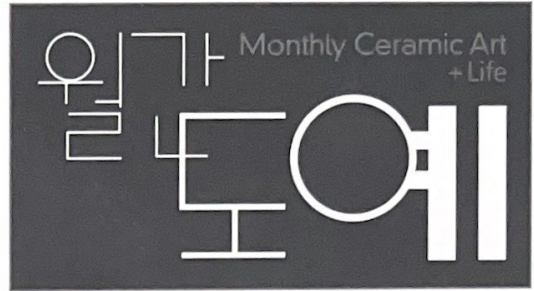




October 2015
vol 235



도예가 박순관의 도구 _ 201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집지
2014



Contents

Monthly Ceramic Art + Life 2015.10 vol 235

- ART**
- 022 Preview
 - 023 Editor's Note
문화 보수주의자의 회개
 - 024 Issue & News
 - 028 Exhibition topic
김정범 도예전
윤주일 <wriggle-tangle>
 - 034 Special feature
201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현장
개막식
기획전 <잇고 또 더하라>
특별전 <아름다움과 행복>
제9회 청주국제공예공모전의 도예분야 수상작들
워크숍&페어
 - 058 Artist
배세진
최보람
 - 066 Focus
통가마 작업 도예가들의 비형식적인 심포지엄
<2015 남이섬 국제도예페스티벌>
 - 076 고미술
토주항과 달항아리
 - 082 Knowledge
1930년대 한국 근대도자 연구 :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2)
 - 088 University
예비대학가이드(3)_동부산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 092 World
이태리 도예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기_c.r.e.t.a.rome
영국 도자 디자이너_리처드 브랜든Richard Brendon
- LIFE**
- 102 Studio
용기로드2_외고산용기마을의 파수꾼
 - 108 Cook&ceramic
Apples
 - 114 Travel
떠나는 여자 김민지가 들려주는 길가온 여행기_전주(2)
 - 118 Beside
두 수집가의 역할_이요셉임형택

이태리 도예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기

c.r.e.t.a.rome 크레타롬

| 최석진 미국리포터



크레타롬 로마작업실 옥상에서 바라본 시내

'크레타롬'은 도예가인 파올로 포렐리(Paolo Porelli)와 역사학자인 로리안 투체트(Lori-Ann Touchette) 부부가 2013년 설립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형예술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과정을 제공하고 워크숍과 전시 등을 통한 도예 교육을 하는 곳이다. 크레타(creta)는 이탈리아로 접토라는 뜻으로 지난 2년간, 미국, 아일랜드, 덴마크, 호주와 일본 등지의 작가들이 참가했다. 크레타롬은 이태리 도예가 니노 카루소(Nino Caruso)가 1965년부터 1985년 국제 도예 교류 작업실을 운영한 이후 현재 이태리의 유일한 국제 도예 교류 장소이다.

지난해 여름, 필자는 크레타롬(c.r.e.t.a.rome)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6월 한 달간 미국과 호주에서 온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작업의 결과물들을 보여 주는 전시와 작품 세계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일정이었다. 바쁘게 지냈던 봄 학기가 끝나고, 집과 학교를 떠나 예술과 역사의 도시 로마에서 작업에 집중하며 재충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포렐리는 이태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도예가이며, 투체트는 미술사가인데, 투체트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7년부터 미국의 여러 대학과 연합해서 해외 교육 프로그램(Study Abroad Programs)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크레타롬의 행정 및 관리를 맡고 있다. 그들은 작가들이 함께 작업하며 문화 교류를 하는 공간을 기획했다. 크레타롬은 로마 중심부 그리고 로마 근교의 스튜디오 두 곳이 있다. 그중 한 곳은 역사 깊은 중세 도시인 앵길라라(Anguillara)의 브라치아노(Bracciano)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아름답고 조용한 환경에 보통 한 명의 작가가 부부나 친구와 같이 머무를 수 있고 야외에서 가스 환원번조 및 라쿠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로마까지 기차로 한 시간 남짓 걸려 로마 문화 탐방도 쉽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곳은 필자가 작업 했던 곳으로 로마의 역사 중심부에 있다. 캐피톨리언 언덕(the Capitoline Hill)과 유대인 거주지 게토(Jewish Quarter) 사이에 위치한 16세기에 지어진 5층 건물 중 일층에 있는데 이곳

은 바티칸 전 폴란드 대사가 거주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로마의 크레타롬 스튜디오는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작업실에서는 도예, 섬유 및 판화 작업 등을 할 수 있으며 보통 점토 및 유약은 이태리 북부에 있는 도예 재료점에서 주문해서 사용한다. 작업실에서는 인터넷과 개인 작업 테이블, 선반, 전기 가마, 물레, 각종 도구와 유약 재료 등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비치되어 있다. 특히 이태리 전통 마올리카 기법이나 환원 러스티 기법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은 운영자 포렐리로부터 기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술사를 전공한 운영자 투체트로부터 박물관 관람에 대한 안내도 들을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 공간에는 냉장고와 전기 스토브, 식기 등이 있어 간단한 음식을 할 수 있다. 작업실 옆에는 전시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레지던시 마지막 주에 작업했던 결과를 발표하는 전시와 작가의 작업 세계에 대한 강의를 한다. 보통 로마의 작업실에서는 두세 명 정도 소수의 작가들이 작업하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며 작업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류를 쌓을 수 있다.

크레타롬에서는 작업실이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관계로 로마의 문화를 최대로 경험할 수 있다. 작업실 근처에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과 화랑과 작가 작업실, 레스토랑, 슈퍼마켓 등이 있는데 그곳에서 파르테는 신전은 도보로 10분, 콜로세움은 20분 정도 걸리며, 시내를 운행하는 관광버스로 이태리 여러 명소들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다. 10분 정도 걸으면 아침마다 열리는 캄포 데 피오리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반찬 재료들을 살 수 있다. 필자는 주로 새벽에 일어나 오후까지 작업하고, 늦은 오후에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들과 도시 곳곳의 역사 유물과 박물관등을 경험 했다.

크레타롬 레지던시의 지원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일 년에 몇 차례 정해진 날짜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통 봄 레지던시는 1월까지이고, 여름 레지던시는 3월 1일까지이며, 가을 레지던시는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은 이메일로 가능하며 작가 이력서와 작업 노트(스테이트먼트, 250자), 작업 계획안(500자), 10점의 대표작품 이미지와 작품 리스트(작품명, 작품년도, 작품크기, 재료) 그리고 희망하는 레지던시 기간 등을 준비해 cretarome@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작업실 사용료 및 거주 비용은 레지던시 과정에 참가하기 전 모두 납부해야 하며, 재료비와 식사 및 생활 경비는 작가가 부담한다. 레지던시 과정은 4주에서 6주의 기간 동안 운영되며, 작가들은 최대 12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크레타롬 레지던시는 2월이나 3월부터 시작돼 12월까지 개방한다. 겨울 시즌은 운영자 포렐리의 개인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기간이다. 크레타롬에는 도예 교육의 일환으로 세계 유명 작가들을 초대하는 워크샵도 열린다. <페이퍼 클레이>, <일본의 자연 예술관> 등과 같은 주제로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워크샵에는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위해 레지던시 과정에 참가하기도 하고, 개인의 창작적 영감을 받거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지원하기도 한다. 크레타롬에서의 작가 선정은 작가, 미술 비평가, 미술사가로 된 위원회가 지원자의 경험과 작품 계획안 등을 검토한 후 결정 한다. 투체트는 필자에게 “한국은 도예의 깊은 전통을 가진 곳으로, 세계 도자 예술의 역사 속에 중요한 곳이다. 우리는 한국의 작가들과 많은 교류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도예가 레베카 허치슨의 페이퍼클레이 워크샵



운영자 로리안 투체트와 파올로 모렐리



도예 연구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도예가 에이미 신토헤라로



도예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도예가 앤지 커레리



필리스 실리반의 강의



안젤라 디코슬라와 도리스 디트리히의 전시 오픈닝을 찾은
원로도예가 니노 카루소와 도예가들



제프 사피르 워크숍



크레타섬의 도예교실



작가 미스티 컴블과 필자의 전시

필자는 2010년부터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곳의 레지던시 과정에 참여해 왔다. 학기 중에는 수업과 학교일로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여름 방학 동안 작업을 위해 참가하는 편이다. 새로운 곳을 찾아가 경험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과정은 어느 곳에서 작업하든 작가에게 신선한 자극과 영감을 주기 때문에 작품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레지던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내온 박스를 풀어 그곳에서 만든 작품을 대하거나, 가방을 열어 그곳에서 만든 작품을 볼 때마다 작품 하나하나에서 작업에 열중했던 기억과 그 지역의 역사와 공간에서 받은 기운을 발견한다. 또한 다른 작가들의 활동을 통해 다른 작품에 대한 특징과 개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 또한 즐거운 경험이다. 필자가 크레타롬에서 작업하는 기간에는 미국의 섬유 예술가와 네덜란드에서 온 장신구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 했다. 그들이 다루는 재료를 가까이 보는 것은 나의 도자 예술을 다시 한번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 다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해외에서 몇 달 또는 몇 주간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집을 떠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지원하는 과정부터 도구와 짐을 싸는 것, 작업 경비 마련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새로운 곳에서 작가들과 어울려 작업하며 매일 되풀이 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계획으로 새로움을 창조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특히 여러 일상에서 벌어지는 벽찬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작업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선한 자극을 준다.

로마의 유적들을 뜨겁게 달구는 강렬한 햇빛과 관광객들의 열기가 어우러졌던 지난 여름, 서양의 고대, 르네상스, 중세 문화가 화음처럼 들리는 로마에서의 기억은 강렬했다. 오래된 건물인 작업실 테라스를 강렬히 때리던 빛줄기가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듯 필자의 창작의 갈증을 녹여주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필자 최석진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예과(BFA)와 대학원(MFA)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미국 크랜볼록 아카데미 오브 아트(MFA)를 졸업했다. 버지니아 박물관 예술 기금(VMFA Artists Fellowship)과 라이튼 인터네셔널 그랜트(Lighton International Grant)를 수상했으며, 개인전 24회와 단체전 190여 회를 했다.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의 제임스 메디슨 대학(James Madison University)의 School of Art, Design and Art History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